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2월 1일 월요일 (음 12월 23일) 제149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한복문화진흥 우리들부터 먼저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복의 날 지정과 한복착용 문화 장려 등의 내용을 담은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을 가결했다.사진은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한복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etch 전주시의회 조례 제정

의원 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도 착용
매월 넷째주 토요일 '한복의 날' 운영

전주시의회가 한복착용문화 진흥 조례제정과 함께 모든 시의원이 한복을 입고 회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복의 날 지정과 한복착용 문화 장려 등의 내용을 담은'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을 가결했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박 자수를 곱게 새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입고 회의에 나섰다. 집행부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회의 진행을 돕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한복을 입었다.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가결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도시브랜드 위상을 한 층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복 대여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복 진흥 조례까지 더해져 도심 곳곳에 한복 착용 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서난이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전주시장은 한복장려 시책추진과 한복문화의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 한복착용 진흥에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복을 입은 시민은 문화시설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한복문화의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또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와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한복착용 문화 진흥에 공로가 큰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도 담고 있다.

서 의원은"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한복입기를 생활화하자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 같이 사는 많은 시민들도 한복입기에 같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의 착용은 민족의 기상과 자존심을 높이는 가치 있는 일이기에 더욱 기쁘고 뜻 깊은 날"이라며 한복사랑에 시의원이 먼저 나서자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2016년 무주군 체육협의회장배

전국 스키 · 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6년 2월 18일(목)부터 2월 19일(금)까지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수배 스키 · 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최: 전주매일신문
▲공동주관: 전주매일신문, 전북스키협회
▲후원: 전북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참가자격: 스키(만 10세 이상), 스노보드(고교생 이상)
▲접수기간: 2016년 2월 17일까지
▲참가접수: 이메일(j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홈페이지(www.jjmaeil.com)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자세한 사항은 다음카페(cafe.daum.net/jjmaeil1/ski)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 주 매 일

도, 설 명절 예산 조기집행

사회복지비 등 포함
재정자금 2907억원

전북도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전북도는 설 명절 전에 사회복지비와 각종 건설공사 공사비 등을 포함한 재정자금 2,907억원을 조기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기 집행되는 예산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훈훈한 명절 나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번에 집행되는 예산으로는 기초노령연금에 503억원, 생계급여 · 주거급여 268억원, 영유아보육료 204억원, 양육 · 보육수당에 50억원 등 1,025억원을 도내 취약계층에 사용하며, 이어 익산IC~금마간 지방도확 · 포장공사 등 시설공사발주 사업비 30억원, 의료급여사업비 537억원, 기타 농 · 축산분야 등 사업비와 인건비 1,325억원 등을 민생경제 각 분야에 고루 집행한다.

앞서 도는 설 명절 자금집행을 위해 정기예금 만기도래 예정액 1,000억원을 재예치하지 않고 대기자금으로 관리 했다. 이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금을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자금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설 명절 자금집행의 원활함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탄력적 예산집행으로 인해 도내 취약계층이 명절 보내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도내 중 · 소 기업들이 각종 공사와 물품 대금, 공사 · 물품 · 용역사업 계약금에 대한 선금 조치로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이어 도는 하도급 대금과 노임의 체불여부를 확인해 대금이 미지급된 현장에 대해서는 자금집행을 독려하고,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 ·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사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은 "설 명절 전 차질없는 자금집행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소외받는 도민이 없이 모두가 즐거운 설명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대병원, 호흡기질환 평가 '최고등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폐렴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등 호흡기질환 적정성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다.

29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처음 시행한 폐렴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은 이에 앞서 실시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모두 1등급을 획득해 호흡기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최고 평가를 받는 쾌거를 거뒀다.

폐렴적정성 평가에서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 ▲병원 도착시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객담도말 검사 처방률 등 7개 항목에서 100점을 기록해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도 표준치료 기준인 ▲폐기능검사 시행률 등의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폐기능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방향 설정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을 잘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박용주 기자